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7월 28일 목요일 (음 6월 25일) 제161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만의 아름다운 간판문화 확립

전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장소 간판제작에 서예가와 화가 등 지역 예술가들을 직접 참여시켜 도시 전역이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도시로 재탄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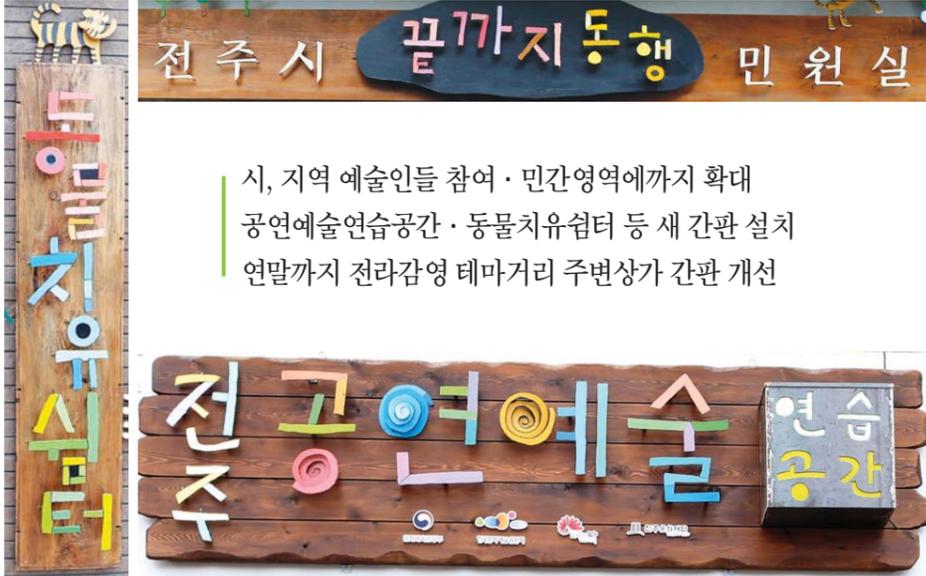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만의 새로운 간판문화 정립과 확산을 위해 앞으로 설치되는 공공장소 간판 제작에 지역 예술가들을 적극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간판 제작 시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참여토록 하고 지역 상가 등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전주만의 고유한 간판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먼저 시는 옛 동산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개관한 '전주공예예술연습공간'과 시청 로비에 마련된 '꿈앤카페&전주책방', '전주시 끝까지 동행 민원실', '동물치유센터' 등 새로운 형태의 간판을 설치했다. 이 간판들은 기존의 글자 중심의 딱딱한 느낌의 간판과는 달리 목재 소재를 활용해 장소별 특성에 따른 개성을 지니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도시경관 개선과 아름다운 간판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예술가들의 심사를 통해 개성이 있거나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 시상하는 '아름다운 간판상'도 제정·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연말까지 총 2억 원을 투입해 풍남문에서 완산경찰서



시, 지역 예술인들 참여·민간영역에까지 확대
공연예술연습공간·동물치유센터 등 새 간판 설치
연말까지 전라감영 테마거리 주변상가 간판 개선

까지 이어지는 전라감영 테마거리 주변 상가 30여 곳을 대상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완료된 풍남문 간판개선사업과 연결, 주변에 난립한 간판을 정리하고 인근 경관과 어울리도록 개선해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시미관이 개선되면 한옥마을로 집중된 관광객들이 풍남문과 남부시장

에 이어 향후 복원되는 전라감영까지 확대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시는 풍남문 로터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 영세상가의 오래되고 낡은 간판과 건물벽면을 풍남문과 어울릴 수 있는 목재와 석재, 기와 등을 활용한 간판으로 제작·설치했다. 김승수 시장은 "간판은 도시미관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전주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에 설치되는 간판 제작에 지역 예술가들을 적극 참여시킬 계획이다"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시작된 전주만의 특색 있는 간판문화가 상가 등 민간영역까지 확대되면 전주시 전역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중복에는 삼계탕



중복(中伏)인 27일 어느 기관의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줄 삼계탕을 준비하고 있다.

이석수, 우병우 감찰... 정치권 '면죄부' 우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기로 하면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 2년 만에 첫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기업 총수 등 주로 대규모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던 대감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특별감찰관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이유는 수사 주체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 수석을 감싸고 있다 해도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을 강도 높게 감찰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된 우 수석의

각종 의혹들 중에서 실제로 감찰이 가능한 부분은 극히 드물다는 분석에 따라 정치권 등에서 벌써부터 '면죄부성 감찰'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특별감찰관의 구성을 보면 이 특별감찰관 밑으로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대전고검 검사)와 특별감찰과장(공석)이 있고, 감찰1·2팀과 운영지원팀 등 총 20여명으로 되어 있다. 결국 우 수석 감찰 인력의 핵심은 이 특별감찰관과 백 특별감찰관보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박용주 기자

박 대통령 "국회, 추경안 원안대로 심의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은 그 속성상 이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지역의 경기 회복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임을 다했다"고 소개했다. /박용주 기자

도내 전역 폭염주의보 8일째

인명·가축 피해 잇따라

열사병·열탈진·열경련 등 온열질환자 49명 발생
익산 망성 닭 사육농가서 닭 3000여마리 집단 폐사
돼지 493·오리 8000여마리 등이 폭염으로 떼죽음

전북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8일째 이어지면서 인명과 가축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2016년 폭염대처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27일 26일 온열질환자는 열사병 10명, 열탈진 22명, 열경련 10명, 열실신 5명, 기타 2명 등 총 49명이다.

폭염은 가축들에게도 재앙으로 다가왔다. 지난 26일 익산 망성면 무형리의

한 닭 사육농가에서 닭 3,0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익산 지역 낮 최고기온은 35.9도를 보였다.

이 외에 도내 축산 피해는 돼지 493마리, 닭 59만2,600여 마리, 오리 8,000여 마리 등 총 60만1,000여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한 것으로 접수됐다.

지역별 피해 농가는 전주 2개소(닭), 군산 2개소(닭), 익산 47개소(돼지 8, 닭 39), 정읍 66개소(돼지

11, 닭 51, 오리 4), 남원 23개소(돼지 7, 닭 14, 오리 2) 등이다.

또 김제 27개소(돼지 7, 닭 20), 완주 12개소(돼지 3, 닭 9), 진안 3개소(닭), 무주 1개소(닭), 장수 4개소(닭), 임실 3개소(돼지 1, 닭2), 순창 2개소(닭), 고창 24개소(돼지 4, 닭 17, 오리 3) 부안 10개소(닭 9, 오리1)로 각각 조사됐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날 전주·정읍·익산·완주·임실 5개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읍 '九景' 구경 오세요!

역사·문화·관광·자연이 어우러진 대표적 명소 각광!

1. 내장산 단풍터널
2.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
3.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4. 무성서원과 상춘공원
5. 백제가요 정읍사문화공원
6. 피향정 연꽃
7. 정읍천 벚꽃길
8. 전설의 쌍화차거리
9. 백정기 의사 기념관